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5268호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中 화웨이 폰서
SK하이닉스 칩 발견
美, 추가 규제 우려
04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547.68 (-0.58)	914.18 (+7.82)	3.795 (-0.052)	1333.40 (-2.00) 〈8일〉

허술한 감사 체계… 작년 1000억, 올해만 592억 횡령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마비된 내부통제 시스템**

〈上〉 업권 불문 사고 줄줄이

은행 뿐 아니라 카드·신탁 등
모든 금융업권 횡령사고 증가
회사 내부통제 제 기능 못해
인력부족에도 지원은 소극적

금융권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과 카드사, 신탁사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사고가 터지는 실정이다. 문제는 회사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은 물론 외부감사에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까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만 벌써 592억7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누적된 사고금액은 2000억원이 넘었다.

작년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1300억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마케팅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을 빼돌렸다. 지난주에는 무궁화신탁에서 한 직원이 9억원을 횡령해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 사고 모두 내부감사나 통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마비되면서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직원이 수년넘게 같은 일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직원에 대해 예고 없이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휴가제도 유명무실했다. 일부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를 점검하거나 여수신 업무도 같이 했다.

내부 상임감사가 있더라도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작년 한 해만 100건이 넘는 횡령사고가 있었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상임감사가 없는 곳도 많았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로 인식해 인력이나 지원조직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김범진 카톨릭대 교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는 세세한 실무가 아니라 제대로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리창 中 총리와 환담하는 尹 대통령

주요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화 행사 전 라운지에서 리 총리와 만나 환담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자 리 총리는 "대통령의 말을 시 주석에 잘 전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총 51분간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KB금융지주 차기회장 후보에 양종희 내정

비은행·글로벌 부문 등 수익구조 다변화 과제

은행 비중 줄이고 비은행 확대
해외 IB 등 사업 다각화 예고

양종희 KB금융 차기회장 최종후보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내부 출신이면서 국민은행장을 역임하지 않은 첫 회장 후보다. 은행 이익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금융지주의 수익구조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수익구조의 판도를 넓히는 것이 과제로 지목된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지난 8일 양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한 이후 "지주·은행·계열사의 주요 경영진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라며 "KB손해보험 사장 및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략 및 재무통'으로 꼽히는 양 부회장은 은행부터 보험에 이르기까지 KB금융그룹의 핵심 사업에 두루 능통한 전문 금융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양 후보자는 2016년부터 KB손해보험 대표이사로 5년간 지내며 KB손해보험을 핵심 계열사 반열에 올렸다.

KB손해보험은 2018년 업황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당기순이익은 2018년 2624억원, 2019년 2347억원 등으로 줄었다. 다만, 신계약가치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한 매출전략을 추진하면서 내재가치(EV)를 큰 폭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말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5577억원이다. KB금융 인사로는 처음으로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맡으며 기반을 착실히 다졌기 때문이란 평가다.

◆ 인수합병(M&A) 통한 비은행 강화

이에 따라 양 후보자의 첫번째 과제는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리인상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익 확대를 위해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KB금융은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목표비중은 60% 대 40%다. 전체 순이익 중 은행의 비중을 줄이고, 비은행 부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조 9967억원으로 비은행 기여도는 38%(1조1382억원)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社告

메트로경제 '2023 물류&모빌리티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초국경 물류위한 현재와 미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도래하면서 글로벌 물류도 대변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기간 폭발했던 국내 물동량은 잠시 소강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지속 성장속에 첨단 기술의 물류 분야 접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이동로봇, 드론,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기술 융합에 적극 가세하면서다. 이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의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또 효율화되고 있다. 기업들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간, 얼라이언스(동맹)간 이합집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초국경 물류를 잡기 위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조명해본다.

- ■ 주 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 일 시 : 2023년 9월19일(화)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 인천대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 강 연 :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대표, 로지올(생각대로) 최규범 부사장
-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metro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녹색기후자금 3억달러 공여
▲위상 높아진 김정은 딸 주애… 주석단 특별석서 2인자 행세 /사진 뉴시스

▲ 정부, 잼버리 수습 비용, 행안·여가·교육부가 보전… 추석 전까지 정산
▲ 인천 행정구역 30년만 개편… 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5000만원 소송 /사진 뉴시스
▲ 전남 장흥 금산리 일대 국립호국원 부지 최종 선정